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잖아. 내용도 보면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회의시간에 늦지 맙시다’라는 말보다 정말 늦으면 안 될 것 같지 않니?

뭐든 내 것을 만들려면 내 나름의 이름을 지어야 해. 여타 기업들과 다를 바 없는 ‘인재상’, ‘기업이념’, ‘경영원칙’... 이런 건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지은 나만의 이름이 아니어서 내 정신과 혼이 배어들지 않아.

2005년부터 16년 연속, 61분기 동안 한 번도 후퇴하지 않고 멈춤 없는 성장을 했던 LG생활건강은 사내의 일하는 방식에도 고유한 ‘이름 붙이기’를 해. 예를 들어 술자리나 담배 담화, 골프 접대, 의전 절차, 회식 없애기 등을 일컬어 ‘5무<sub>無</sub> 경영’이라고 딱 못을 박는 식이야. 그 외에도 ‘내진설계 체질개선’, ‘잼 경영’, ‘세발자전거론<sub>論</sub>’, ‘90분 안에 골인’ 등, 나름의 고유한 이름을 붙여 일하는 방식을 효과적으로 공유해왔지.

자네, 화초와 잡초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해? 잡초는 학술적으로 구분은 되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진 고유의 이름이 없어. 한마디로, 이름이 지어졌느냐 아니냐에 따라 화초가 되거나 잡초가 되는 거야.

이름 없는 잡초로 살아가지 않도록 해봐.